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2.(목) 17:00 배포 2026. 11. 12.(목) 14:00

공익광고로 우리 사회의 선을 잇는다

-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주체적 사고를 강조한 '사라진 기술관' 편 대상(大賞) -

'선(善)을 잇다, 우리를 담다'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선(善)한 가치를 잇는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가 개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2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한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익광고제는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TV·인쇄·영상 부문에서 총 1,489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2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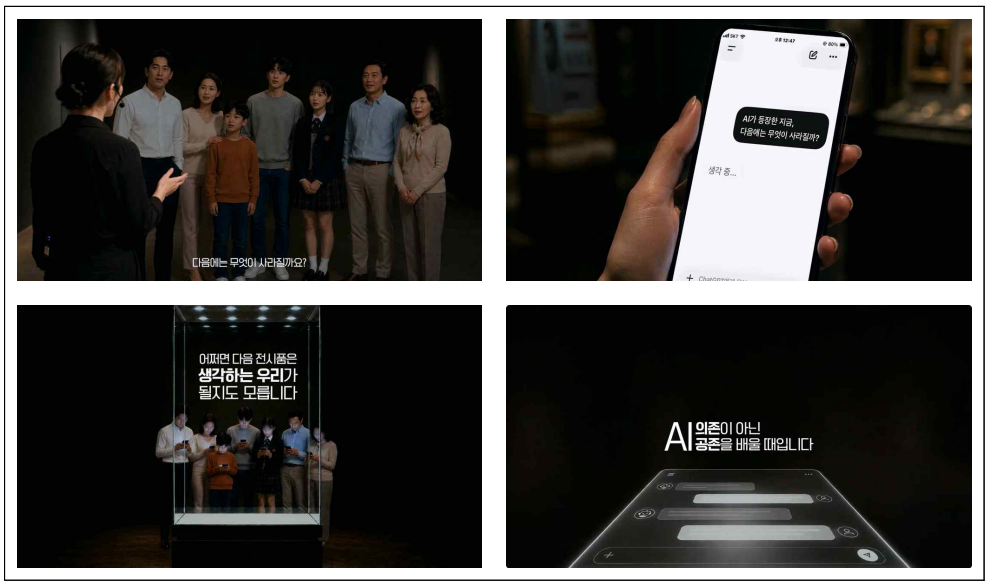
상장과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되는 영예의 대상은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익숙해진 일상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조승현 씨의 '사라진 기술관'이 수상했다.

'사라진 기술관'은 인공지능이 모든 정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기술과 공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인상적으로 전달했다.

금상은 ▲DEEP FACE(일반부 TV부문) ▲동의의 무게(대학생부 TV부문) ▲왕관은 벗자(청소년부 TV부문) ▲동물원(일반부 인쇄 부문) ▲난 청소년 환자입니다(대학생부 인쇄 부문) ▲방전(청소년부 인쇄 부문) 등 총 6편이 선정돼 각각 상장과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은상과 동상 각 6편, 영상 부문 특별상 2편이 선정됐다.

<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 수상작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공익광고에 담긴 선(善)한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익광고가 국민 모두 함께 행복한 ‘미디어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작은 한국광고문화회관 3층 광고박물관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붙임.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안내 전단 및 수상작 현황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2-2110-1270)
		담당자	사무관	김정원 (02-2110-12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두의 미디어 주권,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2026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안내 전단 및 수상작 현황**



< 수상작 현황>

훈 격	부 문		수 상 자		제 목
대상 (대통령)	영상		프리랜서	조승현	사라진 기술관
금상 (방미통위원장)	일반부	TV	Vapi	이성용, 김동현	DEEP FACE
은상			대홍기획	윤성현, 송서율	2050 대한민국 대표 축제
동상			㈜같다	이문섭	작은 창, 큰 창
금상 (방미통위원장)	대학생부		경기대학교	김도연, 윤성빈, 박한울	동의의 무게
은상			경기대학교	박우솔, 우소정	또 다른 나
동상			청주대학교	최승우, 김호용, 신인영	맞았어
금상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김보경	왕관은 벗자
은상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예준	생각 중...
동상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김보경	꿈을 이루려 했을 뿐인데
금상 (방미통위원장)	일반부	인쇄	프리랜서	이명우	동물원
은상			스튜디오 초이스	박유라	오늘 교사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일은 교사를 구해야 합니다
동상			대홍기획	김대식	숙제는 끝냈는데 공부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금상 (방미통위원장)	대학생부		서경대학교	온지호	난 청소년 환자입니다
은상			한성대학교	김예빈	아직 나무입니다
동상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박채빈 / 김아영	가장 따뜻한 약
금상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서울영상고등학교	유다연	방전
은상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안예나	같은 교실, 다른 온도
동상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김채윤	이용약관
특별상	영상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송예희	오누이가 문을 열어준 이유
특별상			프리랜서	김진우	잠식